連載 :

韓國建築의 絶對特殊性에 關한 考察〔Ⅲ〕

朴 彦 坤 — 弘益大學校工科大學建築學科 副敎授
金 東 旭 — 京畿大學建築工學科 專任講師

A STUDY OF UNIQUE CHARACTERISTICS OF KOREAN ARCHITECTURE

Park, Eon Kon — Hong Ik University Prof.
Kim, Dong Uk — Kyung Ki University Instructor

3. 架構와 空間

1

建築의 가장 중요한 特性이 空間에 있다는 認識은 비교적 近代의 일이라고 생각된다. 오랜동안 建築은 樣式위주로 理解되어 왔었으며 특히 19세기의 西洋建築은 樣式에 의해 지배되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近代의 空間에 대한 認識은 바로 19세기의 樣式主義의 극복에 연유한다고 할 수 있겠다.

空間에 대한 認識이 19세기말이나 近代의 所産이라 하더라도 建築이 空間藝術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古代로부터 自明한 사실이었다.

韓國建築에 대하여도 樣式의 理解에서 벗어나 空間에 대한 탐구가 시작되어 空間藝術로서의 韓國建築에 대한 共感이 깊어지고 있음을 發見할 수 있다. 그리고 韓國建築은 空間에 대한 우리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깊은 藝術性을 간직하여 時代를 초월한 藝術的 感動을 現代에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다.

韓國建築의 空間은 自然과 一体가 되어 조화를 이룬 外部空間에서 그 特性을 찾을 수 있듯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꾸준히 形成되어 온 內部空間 속에서도 그 特性을 발견할 수 있다. 木造建築物로 일관해 온 우리나라 建築은 木構造가 갖는 構造的制約 속에서도 獨特한 內部空間의 意匠을 전개해 온 것이다.

우리나라 建築의 內部空間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는 窓戶라든가 바닥面의 材質 등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으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木構造形成의 중심이 되는 架構일 것이다. 따라서 內部空間은 柱·樑構造에 의한 架構에 크게 구속되고 架構와 一体가 된 가운데 형성되어 왔다.

그러나 韓國建築의 內部空間은 이러한 架構에 의한 制約 속에서도 특성있는 意匠을 전개하였는데 그것은 同一한 木造建築을 지어 온 中國이나 日本建築의 內部空間과도 서로 다른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2

기둥과 보는 木造建築의 架構를 구성하는 가장 基本이 되는 部材이다. 內部空間은 이 두가지 부재의 복합적인 結構에 따라 결정된다.

기둥과 보는 건물의 규모나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기둥은 平柱를 기본으로 高柱·退柱 등이 있고 보는 대들보(大樑)·종보(宗樑)·퇴보(退樑)가 있으며 종보 위로 대공이 용마루 밑을 지지하게 둔다. 그림 1은 건물의 규모에 따라 架構의 형태가 바뀌는 것을 나타내는데 內部空間은 架構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가"는 가장 간단한 架構로 기둥(平柱)에 보(宗樑)와 대공만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民家에서 寺刹의 小建物에 이르기까지 가장 흔히 이용된 架構手法이다. 이때의 斷面方向 柱間(스팬)은 대개 8尺~10尺 前後가 된다.

"나"는 平柱 사이에 高柱 하나를 넣은 것으로 前面의 平柱와 高柱가 한스팬을 이루며, 高柱는 後面의 平柱와 退樑으로 연결되는데 그 길이는 대개 半스팬이 된다. 空間의 중심은 高柱의 앞 부분이 되며 退樑으로 연결된 부분은 從的인 空間이 된다.

"다"는 空間이 보다 확대된 것이다. 두개의 高柱가 大樑으로 연결되고 그 위에 宗樑이 놓이는데 이 부분을 중심으로 前後에 平柱가 退樑으로 연결된다. 보통 大樑은 退樑의 2배가 되므로 高柱에 의해 구성되는 主空間과 退樑과 平柱에 의해 구성되는 從空間이 明快하게 구분된다.

"라"와 "마"는 각각 "다"의 架構形式의 變形으로 볼 수 있는데 "라"는 보통 지붕이 重層으로 된 경우로 多包系建物에 많이 이용된다. "마"는 특별히 건물의 바닥면적이 큰 景福宮 慶會樓와 같은 건물에 이용되는 架構形式으로 高柱를 중앙의 2本 외에 前後로 하나씩 추가하고 각각 平柱를 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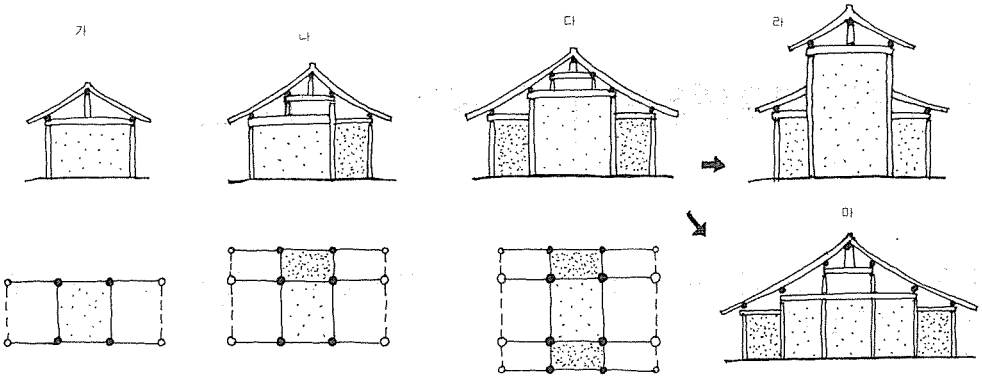

그림 1

그러나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建築物 중 이렇게 측면이 5間이 넘는 건물은 많지 않고 궁전이나 寺刹의 重要建物도 "나"나 "다"의 架構形態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內部空間은 깊이가 적고 옆 방향으로 길어지는 공간을 이루게 된다.

3

內部空間을 꾸미는 意匠은 건물의 양식에 따라 그 성격이 서로 다르다. 즉 柱心包系·多包系 또는 익공系 건물은 그 內部空間의 意匠도 서로 다른 것이다.

우선 柱心包의 경우를 보기로 한다. 柱心包란 栱包가 기둥 위에만 놓이는 것으로 三國時代 이래 꾸준히 발전해 온 가장 오래된 건축양식이다. 柱心包系 건물은 대개 天障을 두지 않고 內部의 架構를 그대로 노출시키는 것이 많이 있다. 그 때문에 部材 하나하나에 대한 장식이 가하여진다.

柱心包系 건물은 고려末期에 지어진 것 중에 健實한 構体와 풍부한 意匠을 갖춘 예가 몇 棟 남아 있는데 그 중 1308년에 지어진 修德寺 大雄殿(그림 2)을 예로 內部空間의 意匠性을 살펴보기로 한다. 修德寺 大雄殿은 두개의 高柱와 前後의 平柱, 大樑·宗樑과 退樑으로 구성되었다. 기둥들은 모두 강한 배흘림이 되어 있어 그 자체 剛塑的인 성격을 나타낸다. 대들보는 部材의 斷面이 소위 항아리型으로 되어 부재 윗면보다 아랫면이 좁게 되었으며 양측면은 항아리의 옆과 같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좁아지는 특이한 曲線을 이룬다. 이것은 他部材에 비하여 특히 굵은 대들보를 밑에서 바라볼 때 실제보다 가늘게 보이게 하여 다른 部材들과 調和를 이루도록 꾸민 결과이다. 대들보 외에 종보·퇴보 등도 유사한 斷面形으로 架工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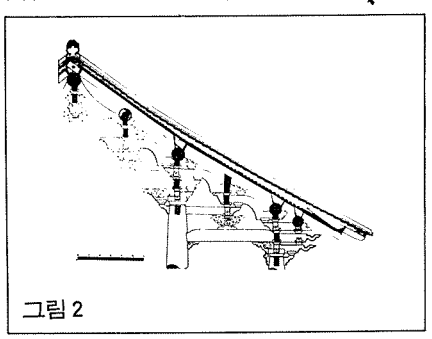
그림 2

기둥과 보 사이, 보와 보 사이에는 하중을 전달해 주기 위한 小部材들, 즉 소로와 첨차들이 끼어 있는데 특히 밑에서 올려다 보이는 첨차들은 원래의 첨차의 형태를 벗어나 曲線의 꽃무늬와 같은 장식으로 바뀌었는데 이를 보아지라고 부른다. 대공(台工)은 보아지와 같은 모양의 曲線장식으로 되어 있어 화반대공(花盤台工)이라고 부르며 그 위에 다시 栱包 모양을 한 포대공(包台工)이 놓여 있다.

이 건물에서 특히 주목되는 部材는 우미량(牛尾樑)이다. 이것은 상하의 위치가 서로 다른, 도리와 도리를 연결하는 부재이므로 자연히 曲材로 된다. 다른 部材가 모두 수직과 수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架構部의 가장 윗부분에 특이한 曲線을 이룬 曲材가 등장하여 내부공간을 경쾌하게 구성해 준다. 더우기 건물의 외부에 노출되는 部材들은 비교적 장식이 적은데 비하여 內部空間을 구성하는 部材들은 하나 하나에 세심한 曲線장식을 가하여 외부와는 다른 화려하고 장식적인 空間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4

內部空間의 독특한 意匠은 多包系建物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 多包란 栱包가 기둥 위에도 놓이고 기둥과 기둥 사이측 柱間에도 栱包가 짜여지는 것으로 고려末期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여 조선초의 宮殿이나 城門 등 권위건축에 널리 이용된 양식이다.

多包系建物은 柱心包와 같이 架構를 노출한 것도 있지만 대개는 天障으로 지붕 밑의 架構를 가리고 있다. 또한 栱包가 많아지므로 內部空間에서 栱包는 의장상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기둥과 보로 구성되는 기본 가구는 柱心包와 동일하며 架構의 形態에 空間이 구속되어 架構와 空間이 一体로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多包系建物의 하나인 觀音寺 大雄殿(그림 3)은 多包系建物의 內部空間에서 栱包가 갖는 意匠的 중요성을 잘 나타낸다. 이 건물은 전·후 두개의 平柱와 하나의 宗樑으로 구성된 매우 간단한 架構로 구성되어 있으며 宗樑의 바로 위에 天障이 덮이어 內部空間 자체는 매우 간소한 형태이다. 그러나 栱包가 柱間에도 둘씩 짜여져 있고 각 栱包는 외부보다 내부가 出目 수가 더 많은 것이 특색이다. 栱包는 外部가 3出目이고 內部가 4出目이며 內部의 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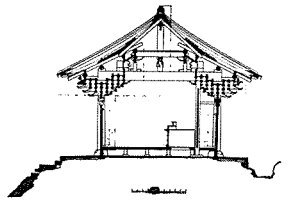
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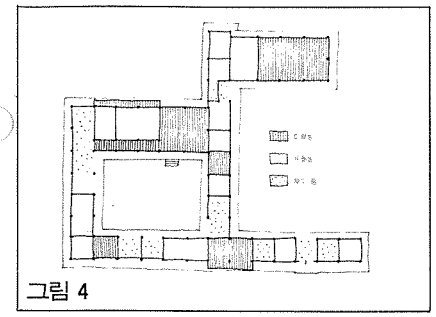
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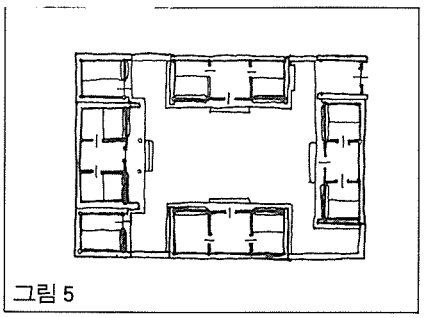
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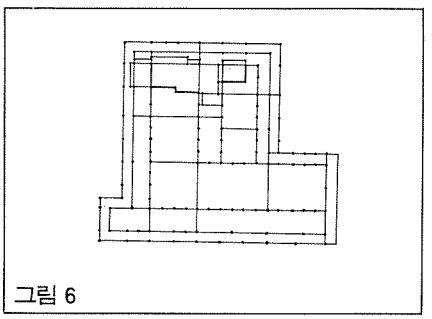
그림 6

차 끝은 소위 雲工形으로 섬세히 장식되어 있다. 따라서 內部空間은 간결한 架構에 4出目으로 장식된 栱包의 압도적인 장식으로 가득찬 느낌을 준다.

多包系建物 중에는 지붕이 重層으로 구성된 것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건물은 高柱로 구성된 높은 空間과 외곽의 平柱와 退樑으로 구성된 낮은 空間과의 강한 主從關係를 이룬다. 忠南 부여郡에 있는 無量寺 極樂殿이 그 좋은 예이다. 외곽의 平柱 위의 栱包와 高柱 위의 栱包가 重層으로 구성되고 雲工形의 첨차 끝의 장식이 중첩되어 화려한 內部空間을 형성한다.

柱心包建物과 多包建物은 두 形式이 모두 架構의 형태가 바로 內部空間을 형성하므로 空間의 意匠은 각 部材를 섬세하게 장식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던 것이며 이러한 현상은 특히 내부공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것이다.

5

익공이나 민도리는 궁전의 부속건물이나 上流住宅 등에 많이 사용된 공포형식인데 이 계통의 건물은 內部空間의 意匠性보다는 건물의 기능과 관련하여 특색있는 空間을 구성하였다.

住居建築은 생활과 가장 밀접된 기능적인 內部空間을 요구한다. 이러한 기능상의 요구에 응하면서 우리나라의 住居建築은 독특한 內部空間을 형성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것은 朝鮮時代의 上流住宅일 것이다.

住宅建築은 비록 그것이 士大夫들의 大邸宅일지라도 架構는 매우 단순한 柱樑構造이며 高柱는 사용치 않고 平柱와 退柱를 사용할 따름이다. 栱包역시 宮殿이나 寺刹建築과는 달라서 익공이나 민도리로 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住宅의 內部空間은 낮고 간소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架構上의 특색은, 各室의 기능이 다양해 짐에따라 退間이 발달하여 內部空間이 前後의 退間으로 확대되어 진 점이다. 그러나 住宅의 空間도 架構에 制約되어 前後半間씩의 退間 이상의 空間의 확대는 없었으며 各室은 네개의 기둥과 보·도리에 의해 규정지어졌다.

한편 조선시대의 士大夫들은 사회적인 特權과 富를 축적하면서 대규모의 邸宅을 지었고 住宅의 기능도 매우 다양하게 되었다. 따라서 內部空間도 여기에 대응하게 되었는데 그 대응은 各室이 橫的으로 확대되어 나가는 것이었다. 이것은 構造的으로 前後方向으로는 1間의 退間밖에 확장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자연히 左右로 室이 연속적으로 확장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림으로 例示한 安東의 養眞堂의 平面(그림 4)은 우리나라의 上流住宅이 各室이 橫的으로 전개·확산되면서 독특한 內部空間과 外部空間을 형성하였음을 잘 나타내 준다. 특히 各室은 마루방과 온돌·부엌과 같이 기능의 차이에 따라 內部空間의 구성이 달라지는데 이렇게 서로 다른 內部空間이 나란히 붙어 있으므로 해서 같은 지붕 아래 길게 연결된 각 室의 단조로움을 깨고 다양한 空間構成을 가능케 한다. 즉 마루방은 천장이 없이 마루도리나 서까래를 그대로 노출시키어 개방적인 공간을 형성하며 온돌방은 대개 天障을 낮게 하여 마루방과 대조적인 공간을 이룬다. 부엌은 흙바닥을 그대로 이용하므로 바닥이 다른 방보다 낮아지고 위에는 다락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또다른 作業空間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성격의 내부공간들이 橫的으로 길게 이어지는 것은 바로 架構에 구속받는 空間을 기능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한 오랜 노력의 결과이며 이것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住宅의 空間的 특성으로 발전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같은 木造建物로 일관해 온 中國이나 日本의 住宅에서는 보기 힘든 우리나라의 독특한 空間구성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中國은 國土가 광대한 만큼 지역에 따라 建物의 성격이 크게 달라지므로 한마디로 그 특성을 정의하기는 어려우나 文獻을 통하여 北京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住宅의 특성을 알아보면 독립된 몇개의 건물이 소위 四合院形式으로 구성된다고 한다. 四合院이란 네개의 건물이 東西南北의 위치에 각각 독립되어 배치되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림 5는 北京市內의 典型的인 한 예이다.

한편 日本의 木造建築은 약 10세기부터 한 건물 안에 서로 다른 기능을 갖는 몇개의 空間을 결합시키는 問題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다. 즉 寺刹의 內陣과 外陣空間을 同一建物 내에서 구조적으로 구분하려고 하였다. 그 결과 15세기 경에는 上流住宅은 架構에서 空間이 분리되어 內部空間은 架構의 제약없이 自由로이 여러개의 방으로 나뉘어 질 수 있게 되었다. 그림 6은 16세기에 지어진 한 邸宅의 일부인데 거대한 지붕 아래에 수많은 방들이 복잡하게 나뉘어져 있고 각 室은 고정된 벽체가 없는 이동가능한 칸막이로 구분되어 있어 內部空間은 쉽게 分割과 統合이 이루어 진다.

中國과 日本住宅의 空間構成과 비교하여 볼 때 우리나라 住宅의 內部空間은 架構에 크게 拘束되면서도 기능적인 요구에 맞추어 특색있게 발전시켜 나갔다고 말 할 수 있겠다. 즉 서로 다른 기능을 갖춘 各室이 연속하여 橫的으로 확산되어 나갔으며 이것이 직각으로 굽어지면서 外部空間을 형성해 갔던 것이다.